

조심 또 조심... 민주, 설화 경계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뒤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말 실수 한번에 표심 이탈 우려... 언행 특별지침 발송 사전 리스크 관리 총력...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리스크 관리를 시작으로 본격 총선 준비에 나선다. 1호 경계 대상은 설화(舌禍)다. 이번 총선의 운명을 가를 중도층의 예민한 표심을 말실수 한 번으로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 선대위는 최근 김민기 총괄선대본부장 명의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과 총선 후보자들에게 '언행 유의사항 특별지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개인적 총선 낙관론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하라',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발언이 추가로 확인될 시 즉각 엄중 조치하겠다' 등 고강도 경고 메시지가 담겼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인전의 14석이 당선되면

우리는 200석을 당선시킬 수 있다"(김교흥 후보), "민주진보개혁 세력이 약진해 200석을 만든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박지원 후보) 등의 발언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현장 연설 때 '사이다'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거침없는 언변을 보여온 이재명 대표 역시 최근 들어서는 격한 표현을 삼가려 애쓰고 있다.

지지자들의 열띤 호응에 목소리 톤을 올리다가 도에서 진정하거나 본인의 손으로 입을 막는 장면도 여러 차례 나왔다.

앞서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2일 선대위 첫 회의 때부터 "역대 선거를 보면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반감을 불러일으켜 선거 전체를 망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일찌감치 입단속을 신신 당부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24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유세 현장에서 벗어난 작은 실수 하나가 대형 악재로 돌아올 수 있다"며 "특히 이렇게 지지율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오르는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북을 공천장을 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가 잇따라 낙마한 것도 총선 본선을 앞둔 사전 리스크 차단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남은 기간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다. 민심을 믿고 낮은 자세로 절실하게 나아가는 것"이라며 "모든 후보는 겸손하게 언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상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탄 것과 관련해서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우리는 수치를 보지 않는다"며 "정권 심판에 대한 민심을 믿고 가되 절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전남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속도

신안·무안 갯벌 보전·관리...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 등

전남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신안과 무안 갯벌지역 보전과 현명한 관리·이용을 위해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관련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 해양보호종 서식지 복원 및 관리 사업, 해양생태공원 관리센터 설립, 생태탐방로 등 조성 등 무안·신안 일대에 300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들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22일 도청에서 '신안·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명칭을 전남도 행정부지사, 전남도갯벌관리위원, 어업인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해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및 조성 추진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날 용역업체는 지금까지 연구해온 무안·신안 갯벌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추진 전략, 기해양생태공원 조성 관련 사업 등을 발표했다. 관련 사업 가운데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기후변화, 해양오염, 과도한 갯벌 이용 등의 갯벌보존, 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블루카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갯벌지역의 어업인 등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보호종 관리를 위한 신안·무안 바닷새 휴식지 조성사업은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등 휴식공간을 조성해 인간과 바닷새가 공존하는 해양관광의 모델사업이다.

중앙정부도 2022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및 국고보조 등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발맞춰 신안·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올 상반기 '여차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전남의 서남해안을 대한민국 국가해양생태공원 관광벨트로 조성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50년까지 5억 그루 나무 심기 도전

전남도, 온실가스 9240만t 감축 목표...올해 1400만 그루 식재

전남도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9240만 감축을 위해 탄소 순배출 제로(Net-Zero)를 달성하기 위해 도내 곳곳에 나무 심기를 실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탄소흡수원 부문 목표량의 91%를 산림을 통해 실현할 계획으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1억 그루, 2050년까지 5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올해만 모두 708억원을 들여 양봉산업 육성 밀원수 441ha, 산불 예방 내화수림 60ha, 목재 및 임산물 소득수 1315ha, 지역 경관수 175ha, 도시수 59개소, 섬수 복원 60ha 등 1400만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22일 합령 대동제생태공원 일원에서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해 대형 산불 피해지 복구와 희망의 숲 조성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이상의 합령군수, 모정환 전남도의원, 윤영량 합평군의회 의

장, 황금영 사단법인 숲속의 전남 이사장, 임업단체, 한국농어촌공사,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 지역 주민, 공무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나무 심기 행사가 이뤄진 곳은 지난해 4월 산불 재난 3단계가 발령된 대형 산불 피해지 중 한 곳이다. 쓰레기 소각이 원인이었으며, 641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피해액도 입목과 시설물 전소 등 63억원에 달했다. 나무 심기 행사에선 산불 피해지가 다시 푸르른 숲으로 재건될 기원하며 산수유나무, 산딸나무, 배롱나무 3000그루를 심었다. 이산화탄소 흡수는 물론 아름다운 희망의 숲으로 거듭나는 마중물이 돼 산림 관공자원으로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선 생활 주변 나무 심기 문화 확산을 위해 대추나무, 체리나무, 대추감나무 등 1800그루 나눔도 진행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중소기업 '가족친화' 경영하면 200만원

광주시, 다음달 15~19일 공모...30개 기업 선정해 지원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2024년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지원 사업'은 각 기업이 제출한 가족친화경영 관련 프로그램 제안서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30개 기업을 선정하고,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은 심사 때 가점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최근 2년 이내 남성 육아휴직 실적에 있는 기업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가족친화경영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가족친화

의 날 의무 시행,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1개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

'가족친화의 날' 의무 시행은 5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이상 특정요일을 가족친화의 날로 지정해 야근 없이 정시 퇴근하도록 하는 제도와 월 1회 1시간 이상 조기 퇴근하는 제도 가운데 1개의 제도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4월 15일부터 19일(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까지며,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 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cherry753@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신기술 실증할 창업기업 찾습니다"

광주시, 다음달 12일까지 공모...최대 1억5000만원 지원

광주시는 "도심 곳곳의 시험 무대에서 신기술을 실증하는 '창업기업제품 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기술 제품을 개발하고도 실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증도시 광주'를 조성, 36개 기업에 장소와 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도 자율형과 솔루션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제공한다.

자율형은 상용화 직전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7년 이내(신산업 분야 10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며, 과제별 최대 1억5000만원의 실증 비용을

지원한다. 솔루션형은 월급1동 일원에 상용화 직전의 폭염저감 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7년 이내(신산업 분야 10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고, 과제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장소 제공 외에도 창업기업이 희망하는 판매처를 실증 현장에 초대해 홍보하는 산업현장 탐방, 우수기업 대상 투자펀드 연계 등도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2-602-8603, 062-239-9613)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